

# ABBA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Rutger Gunnarsson의 Bass연주 특징의 연구 분석

최희철<sup>1\*</sup>, 조태선<sup>2</sup>

<sup>1</sup>청운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sup>2</sup>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 A Analytical Study of Rutger Gunnarsson's Bas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in ABBA

Hee-Chul Choi<sup>1\*</sup>, Tae-Seon Cho<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 Business, Chungwoon University

<sup>2</sup>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앙상블에서 베이스라는 악기의 역할은 화음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선은 그 기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역할에만 집중하다보면 다소 밋밋하고 안정적이기만 한 연주가 되기 때문에 보다 재미있는 연주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Rutger Gunnarsson은 연주곡 위주의 음악이 아닌 대중음악에 이러한 사례를 적용한 예를 ABBA라는 대 그룹에서의 연주를 통해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화려한 테크닉이나 고난이도의 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한 연주만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Abstract** The role of bass in band or ensemble music literally sets up the foundation of harmony, which must be regarded first. On the other hand, this is also considered so basic or stable that it can be slightly boring to the listeners. Consideration is needed to make the varied trials more exciting. In this sense, Rutger Gunnarsson showed these fine examples not in performing music but in pop music through the Great ABBA. He could make a fabulous sound with only a basic performance, not with a florid technique or rhetorical skills. All bassists must bear in mind that the overall performance depends on the bass. In short, to make better music, remember to practice continually and find better methods.

**Key Words** : Bass, Rutger Gunnarsson, ABBA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음악의 편곡에 있어서 베이스는 주로 근음을 담당, 화음의 진행을 명확하게 하고, 강박의 악센트를 연주하여 리듬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음악에서는 보컬의 멜로디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베이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연주하는 안정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베이스는 근음 위주의 연주 스타일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잡한 리듬 및 화음의 구성

음을 모두 다루며 사운드 메이커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그런데 70년대에 발표되었던 ABBA(아바)의 음악에서 현재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을 만큼의 과감하고 개성적인 베이스 라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연주를 구사했던 인물은 Rutger Gunnarsson(룻게르 구나손)으로 ABBA가 처음 데뷔했던 1973년 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모두 중단한 1982년 까지 항상 ABBA와 함께하며 음반의 레코딩, 방송, 라이브에서 베이스 연주와 편곡을 담당했다[9]. 본 논문에서는 1974년 부터 1981년 까지 발표되었던 ABBA의 음반에서 Rutger Gunnarsson

본 논문은 청운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2014년도 석사 학위 논문 요약본임.

\*Corresponding Author : Hee-Chul Choi(Chungwoon Univ.)

Tel: +82-10-9838-5814 email: leesgear@naver.com

Received April 17, 2014

Revised May 22, 2014

Accepted July 10, 2014

이 참여한 곡 중, 그의 연주 스타일이 잘 나타난 24곡을 선정하여 시대별로 나열하고, 각각의 곡에 대해 멜로디, 베이스, 드럼파트의 악보를 분석한 다음 리듬과의 연관성, 멜로디와의 연관성, 화성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연주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3].

## 2. 본론

### 2.1 ABBA

스웨덴 출신의 보컬 그룹인 ABBA는 1974년에 유로 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발표한 곡 <Waterloo>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팝 그룹으로 발전했다. 1945년 스웨덴의 Göteborg(예테보리) 출생의 Björn Ulvaeus(비요른 울베우스)는 Hootenanny Singers(후트내니 싱어스)라는 포크 그룹에서 활동하던 뮤지션이었으며, 1946년 Stockholm(스톡홀름) 출생의 Benny Andersson(베뉴 안데손)은 Hep Stars(헵 스타즈)라는 그룹에서 키보드스트 및 송 라이터로 활동하였다. Björn과 Benny는 1966년 부터 듀오로 활동하면서 많은 곡을 발표해 스웨덴에서는 나름대로의 인기를 유지했다. 1972년 <People Need Love>라는 곡을 녹음하면서 두 여성에게 백 보컬을 맡겼는데 이 곡이 크게 히트하여 성공하였다. 당시 보컬을 맡았던 두 여성은 각각 1950년 Jönköping(이엔체핑) 출생의 Agnetha Faltskog(앙네타 펠트스코그)와 1945년 노르웨이의 Narvik(나르비크) 출생의 Anni-Frid Lyngstad(애니프리드 링스타드)이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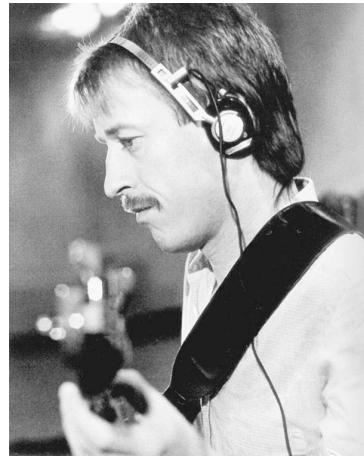


[Fig. 1] ABBA in Eurovision Song Contest 1974

### 2.2 Rutger Gunnarsson(룻게르 구나손)

1946년 스웨덴 Linköping(린셰핑) 출생인 Rutger Gunnarsson은 스톡홀름 왕립 음악학교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했다. 1972년 친구의 권유로 응시한 포크 그룹 Hootenanny Singers의 라이브 투어 베이스 주자의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Björn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로도 ABBA의 베이스 연주자 및 편곡자로 활동하였다. 베이시스트일 뿐만 아니라 작, 편곡자이기도 했던 그는 편곡에 앞서 늘 밴드 전체의 사운드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는데 Bass Player지의 2000년 12월호에 실린 인터뷰 내용에서 편곡에 관한 그의 철학을 알 수 있다.

‘저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베이스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지 연주만 잘하는 베이스 주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베이스 위주의 음악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스를 위한 연습곡으로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타나 스트링, 색소폰 등의 다른 악기들의 연습곡을 베이스로 연주했습니다. 그 덕분에 베이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가장 위에 멜로디 라인이 있고 가장 아래에 베이스 라인이 있습니다. 나머지 파트들은 그 사이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좋은 멜로디와 튼튼한 베이스 라인.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4]



[Fig. 2] Rutger Gunnarsson

### 2.3 Rutger Gunnarsson과 ABBA

ABBA가 발표한 음반은 무려 125장이나 되지만 싱글이나 컴필레이션을 제외한 정규앨범은 Table 1에서와 같이 73년 [Ring Ring] 부터 81년 [The Visitors] 까지 총

8장이다. ABBA의 모든 곡은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전부 Björn 과 Benny가 맡아서 작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베이스 파트는 Rutger Gunnarsson이 대부분의 곡을 연주하였으며 이따금 밴조와 만돌린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트링 및 브라스 편곡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ABBA의 음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1972년 Björn 과 음악적 동료로서 ABBA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활동했던 Rutger Gunnarsson은 ABBA의 음반뿐 만 아니라 라이브 밴드의 전속멤버로 전 세계의 투어를 함께 했다. 또한 ABBA가 해체된 이후에도 Björn, Benny와 함께 뮤지컬 맘미아의 음악작업을 하였으며 Agnetha와 Frida의 솔로음반에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도 ABBA의 모든 멤버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BBA의 또 다른 베이스리스트였던 Mike Watson(마이크 왓슨)은 무려 5장의 정규음반에 참여하였으나 어디까지나 Rutger Gunnarsson의 백업 멤버였기 때문에 많은 곡을 연주한 것은 아니었다. Arnold Paseiro(아놀드 파세이로)는 디스코 밴드로 유명했던 Foxy(폭시)의 멤버로서 1979년 발매된 [Voulez-Vous]의 타이틀 곡 <Voulez-Vous>에 참여하였다. 그 밖에도 Per Sahlberg, Stefan Brolund 두 명의 연주자가 비정규앨범 및 히트곡을 모은 컬렉션 음반에 각각 베이스로 참여하였다.

[Table 1] The Bassist of ABBA

Release Date	Album Title	Bassist
1973	Ring Ring	Rutger Gunnarsson Mike Watson
1974	Waterloo	Rutger Gunnarsson Mike Watson
1975	ABBA	Rutger Gunnarsson Mike Watson
1976	Arrival	Rutger Gunnarsson
1977	The album	Rutger Gunnarsson
1979	Voulez-Vous	Rutger Gunnarsson Mike Watson Arnold Paseiro
1980	Super Trouper	Rutger Gunnarsson Mike Watson
1981	The Visitors	Rutger Gunnarsson

### 2.4 Rutger Gunnarsson의 연주 특징

ABBA의 음악에서 Rutger Gunnarsson의 베이스 연주를 크게 악센트와 화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을 때 이 중에서 유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공통점을 찾아 네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해당 기법에 대한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4.1 음정의 도약



[Fig. 3] 16 beat pop bass

Fig. 3과 같은 16 beat 패턴에서는 스네어 드럼이 나오는 2, 4박에 근음이나 5음을 연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Rutger Gunnarsson은 Fig. 4에서와 같이 2, 4박에 근음의 옥타브음을 사용하여 다이내믹한 느낌을 만들고 있다.



[Fig. 4] Rutger Gunnarsson style 16 beat pop bass

#### 2.4.2 보조음의 사용



[Fig. 5] 8 beat pop bass

Fig.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 Beat 패턴의 경우 킥 드럼에 맞추어 베이스를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Rutger Gunnarsson은 [Fig. 6]에서와 같이 2, 4마디의 첫 박에서는 강박에 근음보다 2도 아래의 보조음을 연주하고, 뒤이어 나오는 약박에 2도 상행하여 근음을 연주함으로써 악센트를 반박자씩 밀어낸 느낌을 만들고 있다.



[Fig. 6] Rutger Gunnarsson style 8 beat pop bass



[Fig. 7] 8 beat rock bass

Fig. 7과 같은 8 beat rock 패턴에서는 8분 음표를 연속해서 근음으로 연주하며 이따금씩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Rutger Gunnarsson은 Fig. 8에서와 같이 2, 4박의 스네어 드럼의 자리에 옥타브 음이나 쉘표를 넣어 악센트를 만들었다. 2, 4마디의 4박에는 장2도의 보조음 'G'를 강박에 사용하여 독특한 분위기가 되었다. 보조음은 비화성음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약박에 사용한다[5]. 하지만 이 경우는 근음이 계속 반복되므로 일부러 강박에 넣어줌으로써 단조로움을 깨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Fig. 8] Rutger Gunnarsson style 8 beat rock bass

### 2.4.3 악센트 위치의 변경



[Fig. 9] verse of YMCA(Village People)

Fig. 9는 Village People의 YMCA verse부분이다. 8 Beat Disco 패턴으로 근음과 옥타브음이 번갈아 반복되는 안정적인 구성이다. 2마디의 3, 4박은 Db, D가 각각 한 박자씩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을 Rutger Gunnarsson의 방식으로 연주하면 Fig. 10에서와 같이 4박의 강박과 약박에 Db, D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한 박자에 한 음씩'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을 일시적으로 흔들고, 4마디의 4박에서 약박의 악센트를 16분 음표 당겨서 리듬의 펄스를 변화시켜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Fig. 10] Rutger Gunnarsson style YMCA

### 2.4.4 멜로디와의 조화

베이스는 리듬 뿐만 아니라 멜로디와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멜로디와 리듬의 일치, 멜로디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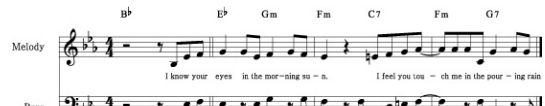
유니즌, 멜로디의 공백을 보강하는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 2.4.4.1 멜로디와 리듬의 일치



[Fig. 11] verse of How deep is your love(Bee Gees)

Fig. 11은 Bee Gees의 How deep is your love verse 부분이다. 원곡에서는 베이스가 코드의 근음만을 사용하여 일정한 패턴으로 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Rutger Gunnarsson의 방식으로 연주하면 Fig. 12에서와 같이 픽업노트로 시작되는 멜로디와 리듬을 일치시켜 연주할 수 있는데 특히 두 번째 픽업노트 부분은 제 3마디의 첫 박을 당기는 것 까지 함께 표현하여 멜로디와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다.



[Fig. 12] Rutger Gunnarsson style How deep is your love

#### 2.4.4.2 멜로디와의 유니즌



[Fig. 13] verse of Tragedy(Bee Gees)

Fig. 13은 Bee Gees의 Tragedy verse부분이다. 1, 3마디의 1박은 이 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백보컬이 함께 노래하고 있다. 원곡의 베이스는 2분 음표로 차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Rutger Gunnarsson의 방식으로 연주하면 Fig. 14에서와 같이 1, 3마디의 1박의 멜로디와 유니즌을 이루며 동기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Fig. 14] Rutger Gunnarsson style Tragedy

2.4.4.3 멜로디의 공백을 보강

[Fig. 15] verse of Desperado(Eagles)

Fig. 15은 Eagles 의 Desperado verse부분이다. 원곡은 4마디의 4박째를 제외하고는 2분 음표와 4분 음표를 주로 사용하여 차분하게 연주했다. 이것을 Rutger Gunnarsson의 방식으로 연주하면 Fig. 16에서와 같이 4분 음표를 기본으로 연주하되 노래의 멜로디가 비는 부분에서 박자를 잘게 나누고, 코드톤을 이용하여 여백을 채우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2마디는 C코드의 1전위 화음인데 베이스가 'E'를 연주하다가 단6도 상행하여 근음을 보조적으로 짚고 돌아오도록 하여 차분함 속에서도 다이내믹한 느낌을 만들 수 있다.

[Fig. 16] Rutger Gunnarsson style Desperado

3. 결론

음악에서는 멜로디가 가장 부각되기 마련이다. 특히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팝음악에서는 멜로디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의 편곡이 주를 이루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베이스의 편곡은 대부분 근음 위주의 안정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한 기존의 연주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위에 나열된 특징들은 전통적인 베이스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Rutger Gunnarsson은 이러한 요소를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사용하여 ABBA의 음악이 동시대의 다른 음악과 차별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초창기 재즈에서 튜바로 시작된 베이스 파트는 콘트라베이스를 거쳐 일렉트릭 베이스로 넘어가면서 주법 또한 발달했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으며 일부 베이스 연주자들은 그 어떤 악기보다 더 화려하고 빠른 연주를 구사하며 베이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 했다. 그러나 화음의 기초를 지

탱하는 베이스의 기본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6].

양상블에서 베이스라는 악기의 역할은 화음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선은 그 기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역할에만 집중하다보면 다소 밋밋하고 안정적이기만 한 연주가 되기 때문에 보다 재미있는 연주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Rutger Gunnarsson은 연주곡 위주의 음악이 아닌 대중음악에 이러한 사례를 적용한 예를 ABBA라는 대 그룹에서의 연주를 통해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화려한 테크닉이나 고난이도의 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한 연주만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음악은 유행을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음악이 탄생되기까지 각 악기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원칙을 지키되 틀 속에 국한되지 않았던 Rutger Gunnarsson의 스타일은 베이스 연주자라면 필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The Score of Musical <Mamma Mia>", Dakota Music Service. 2002.
- [2] "ABBA GOLD", Wise Publications. 2008.
- [3] "The Gig Book ABBA", Wise Publications. 2012.
- [4] "Bass Player", A Miller Freeman Publication. pp.18, DEC. 2000.
- [5] B. D. Beak, "Theory of harmony" Sumundang. pp.157, 2007
- [6] Joachim Ernst Berendt, "Jazz Book" Jaemum & Moeum. pp.573-574, 2004 DVD
- [7] ABBA The Definitive Collection DVD. Polar/Universal. 2004.
- [8] ABBA In Concert 1979 DVD. Polydor. 2004. web site
- [9] <http://www.abbasite.com>
- [10] <http://felpin80.tripod.com/ata/index.html>
- [11] <http://www.lyricsfreak.com/>
- [12] <http://www.allmusic.com/>
- [13] <http://www.themusicofabba.com/musicians1.html>

**최 희 철(Hee-Chul, Choi)**

[준회원]



- 1994년 1월 : Nevermind 활동.
- 1999년 9월 ~ 현재 : 박효신, 노라조 등 레코딩, 라이브 활동
- 2004년 1월 ~ 2008년 3월 : Commonground 활동
- 2008년 3월 ~ 현재 : 맘마미아, 캣츠 등 뮤지컬 뮤지션 활동
- 2013년 3월 ~ 현재 : 두원공과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뮤지컬, 연주기법

---

**조 태 선(Tae-Seon, Cho)**

[종신회원]



- 1983년 10월 : MBC대학가요제 금상 수상
- 1988년 3월 : Solo 1집 앨범 발표
- 1995년 12월 : 뮤지컬 왕과나 음악감독(서울 예술의전당공연)
- 2002년 4월 : TJB 음악토크쇼 음악이 머무는밤 MC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싱어송라이터

---